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4. 3. 14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행복주택기획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대순, 사무관 장창석, 주무관 오요셉 • ☎ (044)201-4522, 4524
보 도 일 시		2016년 3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5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행복주택 , ‘홈스(Homes)’ 에게 물어보세요

- 행복주택 SNS기자단 홈스(Homes) 2기 활동 시작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강호인)는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알아보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SNS 기자단 홈스(‘Homes’)* 2기를 운영한다.

* ‘Homes’는 집(homes)이라는 뜻과 명탐정 홈스를 연상케 하는 음(音)으로 행복주택의 주요 수혜대상인 젊은 계층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

○ 이들은 페이스북, 카카오톡, 트위터 등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할 계획이다.

* 행복주택 페이스북 주소 <http://www.facebook.com/happyhouse2u>
 블로그 주소 <http://blog.naver.com/happyhouse2u>

○ 특히, 홈스(Homes) 2기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23곳을 입주자 모집 전에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현지 여건을 입주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다.

□ 3.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행복주택 홈스(‘Homes’) 2기(20명)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60대 어르신부터 주부, 대학생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.

- 60대 이동우씨는 ‘일부 지역에서 행복주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. 행복주택은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휴식과 안정을 주는 주택이고, 이에 대한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.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홈스(Homes) 활동을 해나가겠다’고 참여의사를 밝혔다.
- 대학생 신혼부부인 임정혜씨는 ‘저는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 행복주택에 저와 같은 대학생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처럼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홈스(Homes)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었다’고 밝혔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‘이번 홈스(Homes)기자단은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행복주택의 취지와 장점을 이해하는 많은 국민들이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행복주택을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 선순환의 시작’이라고 평가하며 ‘내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’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장창석 사무관(☎ 044-201-4522)에게 연락주시기
 바랍니다.